

캠트로닉스, 차량용 단말기·기지국 등 공급

“올해는 자율주행사업 수확 원년”

고속도·국도·지방도 3만km에 2025년까지 도로용 기지국 설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율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 계획

코스닥 상장사 캠트로닉스 주가는 26일 2만845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26일(1만6950원)에 비해 3개월 만에 약 68% 뛰었다. 자율주행 기술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 그간 공들인 신사업이 올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응수 캠트로닉스 전무는 “2014년부터 공들인 자율주행 사업이 올해 제대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다”며 “국산화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트로닉스는 창업자 김보균 회장이 1983년 세운 신영화학이 전신이다. 2000년 지금의 사명으로 문패를 고쳐 달았고, 2007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현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 수준이다. 김 회장의 장남인 김응수 전무가 이끌고 있는 자율주행사업이 일등공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차량 간 통신은 물론 차량과 사물 간 통신도 필요하다. 캠트로닉스는 이를 아우르는 통신기술(V2X)을 구현하는 모듈과 차량용 단말기(OBU), 도로용 기지국(RSU) 등을 생산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 도시를 지향하는 판교제로시티를 비롯해 세종



김응수 캠트로닉스 전무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본사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시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사업, 제주 버스정보시스템(BIS), 대구 수성 일파지구 등에 OBU와 RSU 등을 공급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시가 캠트로닉스 제품을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본사업에 나서면서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무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로 약 3만km에 RSU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프라가 갖춰지면 완성차 업체들도 신차에 OBU를 장착해 앞으로 5~10년간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캠트로닉스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능의 ‘서라운드뷰모니터링(SVM)’도 양산 중이다. 차량 주변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영상으로 구현해주는 제품이다. 현재 르노삼성 SM6, QM6, XM3 등 5개 모델에 장착되고 있다. 올해 안에 다른 완성차 업체로 공급을 늘리나

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자회사 넥스비를 통해 지분 100%를 75억원에 인수한 비온드아이(옛 KSS-이미지넥스트)가 고객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에 국내 최초로 서라운드뷰 솔루션을 공급한 이 회사가 중국 지리자동차, 영국 로터스 등 다양한 기업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 개발한 화학 소재 사업도 기대된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되는 소재를 올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캠트로닉스가 국산화했다.

캠트로닉스의 올해 매출은 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매출 3869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을 각각 거뒀다. 작년 연간 매출은 창사 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삼바, 창사 9년 만에 매출 1조 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로 수탁생산 수요 급증 매출 1조1648억·영업익 2928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9년 만에 연매출 1조원 고지에 올랐다.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위탁생산(CMO)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1조1648억원, 영업이익 2928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7016억원)에 비해 6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9% 급증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2019년 13%에서 지난해 2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업레버리지 효과란 고정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4분기엔 매출 3753억원, 영업이익 926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 매출 2746억원, 영업이익 565억원 대비 각각 37%, 64% 뛰었다. 회사 관계자는 “3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 가동률이 오른 데다 코로나19 치료제 수탁생산이 매출에 반영되며 실적이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국 GSK와 6938억원 규모 CMO 계약을 포함해 지난해 1조8908억원 규모 계약을 수주했다. 2019년 매출의 26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까지 수주한 CMO 건수는 모두 47건이다.

올해엔 생산설비 운영을 효율화하고 4공장의 조기 수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실시간 가상 투어를 통해 해외 규제 기관의 실사·검사를 지원해왔던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코로나 긴 터널 벗어나는 치과 재료·장비업체

4분기부터 수출 급증 치과 방문 환자도 늘어나

국내 임플란트 제조 회사들은 작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주요 수출국에 전면 봉쇄(특다운) 조치가 내려지면서 치과들이 문을 닫은 탓이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반전이 일어났다. 치료를 미뤘던 환자들이 다시 치과를 찾기 시작하면서 중국 대만 등에서 매출이 늘었다. 올해는 백신 접종 영향 등으로 국내 치과 재료·장비 제조 회사들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치과 재료·장비 등 관련 업체의 수출 금액은 2억1000만달러로 2019년 4분기(1억7000만달러) 대비 23% 늘었다. 작년 1~3분기에는 업체별로 많게는 절반 이하로 줄었던 수출이 4분기 들어 처음으로 성장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다.

치과 재료·장비 회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치과가 폐쇄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환자가 입을 벌리고 치료 들어 처음으로 성장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다.

치과 재료·장비 업체 매출 1위인 오스템플란트는 작년 4분기 매출이 1712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증권사들은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어난 수



어 있는 해외 영업망 역시 ‘울스톱’이었다. 작년 1분기에만 중국 매출이 50% 이상 줄었던 오스템플란트의 임태관 대표는 “각각 정부가 제일 먼저 내린 조치가 치과 폐쇄였다”며 “매출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미뤄던 치과 방문을 시작하는 환자가 늘면서 들어 처음으로 성장세(전년 동기 대비)를 보였다.

치과 재료·장비 업체 매출 1위인 오스템플란트는 작년 4분기 매출이 1712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증권사들은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어난 수

치다. 임플란트는 차이가 없는 부위에 인공 치근을 이식해 치아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재료다.

작년 1~2분기 부진했던 실적은 3~4분기에 만회했다.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611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대표는 “치료를 미뤘은 환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측해 영업사원 등을 줄이지 않았던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반등세를 보여줬다. 지난해 1분기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7% 줄어든 129억원에 불과했지만 2분기에는 410억원으로 급반등했다. 3분기에는 434억원으로 더 늘었다.

임플란트 2위인 덴티움은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12.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작년 4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수준(0.9%)을 회복했다.

치과용 진단기기 업체도 비슷한 추세다. 치아, 뼈, 연조직 등 치아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3차원(3D)으로 보여주는 기기를 만드는 레이 역시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3.7% 줄어든 55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은 88.8% 늘어난 105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고글 형태 제품...혈자리 자극해 안구건조증 완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 서동메디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300여개 안과에서 사용

사람은 보통 3~5초에 한 번씩 눈을 깜박인다. 하지만 전자 기기, 책 등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박임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눈 표면이 마르면서 건조해진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현대인이 안구건조증에 걸리기 쉬운 이유다. 서동메디칼은 진동·공기압 등 마사지를 통해 안구건조증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기기 ‘누리아이’를 생산하고 있다.

고글 형태의 누리아이 안쪽에는 진동 마

사지에 쓰이는 지압봉이 달려 있다. 고글과 선으로 연결된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지압봉이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혈자를 자극한다. 이후 온열 마사지를 통해 눈꺼풀 속 지방 분비물을 녹여준다. 그 뒤 공기압 마사지로 지방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정은 서동메디칼 대표(사진)는 “눈 주위 피부 근육이 굳은 것을 풀어주고 눈 밑 지방(기름)을 녹여주면 안구건조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개발에 나선 제품”이라며 “2011년 국내 처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 300여 곳의 안과에서 이 제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아이와 처음부터 의료계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김 대표는 누리아이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 두 곳에서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임상시험 결과는 영국안과학술지(BJO) 2013년 10월호에 실렸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도 받았다. 안과 병원들이 누리아이를 찾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서동메디칼은 무역업을 하던 김 대표가 안과를 다니다가 직접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기로 결심하고 1996년 창업한 회사다. 회사는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501K’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등 수출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사페론, 셀비온과 면역항암제 공동개발

바이오기업 사페론은 셀비온과 암 질환 진단용 및 치료용 신약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셀비온은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과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오 기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승인을 획득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사페론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유럽 임상 2상에 사용할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에 공급했다.

사페론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나노바디 기반의 양전방출단층촬영(PET)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진단제 등 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면역항암제 치료 약물을 찾고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 진단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Advertisement for SAMJIN 삼진제약's '트레스탄' (Tress-tan) product.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almon and text in Korean. The headline is "[멸치의 꿈]" (The Dream of Mullet). The main text says "비결은 하나, 무조건 잘 먹어야 해!" (The secret is one, you must eat well!). The product is described as a dietary supplement for cancer prevention and recovery.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MJIN PHARM and a website URL.